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 joo3

공대학생회 '독토'에게 보내는 제안
문제해결위한 대화 요구 될 때

4월3일자 공대 독서토론회 연합(이하 '독토')이 배포한 유인물을 읽고 공대학생회는 그 에대한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등록금을 학생과 합의했다'라는 대목과 '몇개과 학생회장들의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대학생회의 의견을 밝힌다. 전년도 공대 학생회와의 인수인계에서 제28대 공대학생회가 받은 것은 그 흔한 서류한장 없으며 486컴퓨터와 프린터, 집기류(의자, 책상)등도 인수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28대 공대학생회의 95년 학생회 사업은 맨땅에서 일어나 시작한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과 학생회장들과의 회의인 운영위도 3월 들어 한번도 열지 못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협박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누가 협박을 당했는지 독토는 명확히 밝혀야 하며 현 공대학생회는 자료조사 민주받지 못해 내용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독토는 합의서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둘째로 학생회 활동을 해본 독토구성원들도 교통문제에 관련하여 어떤 상황인지 잘 알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어찌 교통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란 말인가?

그리고 학생회가 비운동권이라서 교통문제가 해결 않된다는 식의 논리로 공대학생회를 비판하는데 대해 현 공대학생회 간부들은 몹시 실망스럽다.

세째로 골프장에 대해 공대학생회는 분명히 학교측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마치 공대학생회가 찬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골프장과 관련하여 한번이라도 학생회실에 들려 학생회 입장을 들어본적이 있는지 묻고싶다.

네째로 제2공학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대학생회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로서 학장님과 협의해서 2공학관 건설을 약속 받았으며 지금 대지 선정과 건설 계획이 진행중임을 공식적으로 알린다.

아울러 제28대 공대학생회는 독토연합과 더불어 3천6백여 공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공대학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유 기 택
〈공대학생회 기획부장〉

도서관에 커피자판기 있었으면
여론수렴 통한 개선점 찾아야

91년 입학당시만해도 '비둘기'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앙도서관이 이제는 어엿한 학교의 중앙 건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 동안 늘 불편하게 여겼던 열람실이용과 자료열람에 있어 공대와 외대 학우들을 제외한 할짜고가 너머의 학우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듯 싶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개선되야 할 점들이 산재해 있는게 사실이다. 우선 24시간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우들에게 밤늦은 시간에 허기짐을 채울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있는 실정이다. 하다못해 커피를 한잔 마시려해도 학생회관까지 가야하고 배고픈 학생들은 학교 정문옆의 상가지역까지 가야만 한다.

하지만 이렇게 힘겹게 얻은 에너지는 되돌아 오는 길에 다시 소비되어 버리고 만다. 미리 벅거리를 준비했다고 해도 마땅히 먹을 장소도 없다. 물론 심야 영업의 어려움은 알수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것도 아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자료열람시간이 학충됐다고는 하나 국제 학술 잡지 자료 열람시간은 여전히 그대로인점과 서울의 대형 서점보다도 넓은 개가 열람실의 서가에 빈공간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로이 발급된 ID카드를 받으며 자랑할게 하나 더 늘었다는 어느 한 학우의 순수한 마음이 훨씬 폭넓고 다양한 자료를 갖출으로서 도서관을 진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이밖에 여러면에서 학우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여러 불편한 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학교는 나름대로 공들여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학우들의 불만을 누그러 뜨리기 위한 고도의 제스처일 뿐이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남 영
〈환경2〉

교과과정 개편위 강의내용 부실
알찬강의, 교수·학생노력 필요

졸업을 앞둔 입장에서 이제 대학생활을 조금씩 마감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고 예전에는 신경쓰지 못했던 여러가지 학교생활의 모습들이 여러가지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유용한 지식들을 배워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강의를 듣지만 다가오는 것은 허탈감뿐이다. 교과과정 개편으로 교과과정 편성표상으로는 대폭 보완된 듯 했던 강의는 교수들의 준비 부족으로 학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력이나 미흡하고,전공과정도 마찬가지다.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교수 부족때문에 강의를 외부강사나 시간강사에 의존해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해도 많은 등록금을 내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강의듣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의 집중력 부족만은 아닌듯 하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사회속에서 경쟁의 이름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물론 본인의 노력과 성실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학교에서 갖춰 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대충대충 학점이나 잘 주고 학생들을 권하지(?) 하는 그런강의가 인기있다면 그런 학교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교수들은 성실한 강의 준비 후에 강의에 임해야 하고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 책임있는 준비로 내일에 임해야 하겠다.

심 왕 주
〈농학 4〉

복지매장 판매저렴해야
질좋은 서비스 유도가능

우리학교 복지회관 5층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가격면에서는 일반 점포와 별 차이가 없어 구내 시설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안내 책자나 현수막등에서는 분명히 할인 비율을 명시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만 막상 찾아가 보면 할인 품목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광고가 턱없이 과장되어 있어 속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 학교내에서 한 상품의 공급권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상권의 확보를 의미한다. 대량 구매와 판매가 가능하고 그 수요가 지속적이며, 수요 품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관매예상이 쉬운점 등 여러가지 잇점이 있다.

그러므로, 가격은 시중가보다 당연히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관내 편의시설은 그런 당연한 가격인하는 외면한 채 과대 광고를 일삼는 등 학생들을 기만하는 독점적인 이윤 추구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싶다. 학생들이 언제까지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편의 시설들은 근시안적인 경영방식을 바꾸어서 좀더 저렴한 가격과 질좋은 서비스로 내부 수요를 유도하고 아울러 이윤의 일부도 학생 복지에 사용하는 진정한 상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오 경 호
〈문리대·영문1〉

24시간 열람실 돋보이는 조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 가관과 더불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받아보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와 좋은 서비스를 실시하려는 도서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자료의 전산화를 일부 완료하고(단행본) 외적인 틀을 갖추어가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25만권의 장서를 97년까지 40만권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미침 총학의 질의 및 건의와 관련하여 실시중이거나 실시예정인 도서관 서비스의 주요내용을 알아보자.

〈편집자〉

수원캠퍼스 도서관 안내
이용자 위한 전산화 서비스 기대

1. 도서관 도서대출시간 연장

가. 실시일자 : 4월3일부터 실시중

나. 연장시간 : 09:00~19:30까지(19:30~20:00까지 도서관 전산시스템의 종료 및 당일 데이타의 백업받는 시간필요)

2. ID 카드발급

도서관의 전업무가 완전 자동화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천연색 사진부착의 ID 카드를 소지한 학생만이 도서관 출입과 도서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증 겸용으로 사용하니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3. 도서관 장서확충

가. 장서확충계획

도서관 장서 150만권 확보계획(서울, 수원 공통)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1)도서구입 예산의 대폭적 확충

2)국고보조 도서비 적극 활용

3)장서기증운동 전개-동문, 교수 등에 기증 운동 적극 홍보

4)기관 발간도서의 기증 활동 적극 전개-타기관 및 단체에 교내 발간물의 적극적인 기증활동을 통해 상호기증 확대

나. 외국도서의 확충

1)도서 전시회를 통한 양질의 원서 구입

정기적으로 연 2회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균형있는 장서개발을 이루고자 함

2)해외자매 대학 등을 통한 도서의 상호교환

3)정보이용의 확대

본교 소장도서가 아니더라도 통신망을 통하여 다양한 교내외 자료의 검색 및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인터넷, 천리안, CONET 등

4. 도서관 전산시스템 이용

전산화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좋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으로 아직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가 4월말 발간될 예정이며 수시로 대학주보 및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5. 학생 희망도서 신청

도서관내의 검색 단말기 및 교내의 LAN에 접속된 모든 PC를 통하여 어디서나 희망도서의 신청이 가능하다. 본 수서과에서는 매일 아침 전날의 희망도서 신청을 조사하여 일정량이 되는대로 주문하여 신속히 열람시키고 있다. 신청도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신청자가 처리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신청시에 저자, 서명, 출판사-외국도서의 경우 가능하면 보유서점명-등 필수서지 사항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구입할 수 있음) 특히 급한 사입내에 본인이 열람하기 힘든 책이더라도 후학 및 도서관을 위하여 구입신청을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6. 기타도서관 이용

가. 신착도서 안내

1)일반도서류

구입신청한 도서가 입수되고 소정의 자료조직 절차를 거쳐 정리가 완료된 책은 본 전산 이용자 시스템의 신착자료 조회란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2)신착 학술 잡지 목차 서비스

인터넷을 통하여 Uncover의 학술잡지 목차를 검색할 수 있다.

나. 시청각 자료 이용

1)Microfilm Reader 및 프린터의 이용 가능(설치완료, 학술잡지실)

2)AV 룸을 통하여 음악 감상 및 비디오감상 뿐 아니라 비디오나 OHP를 이용한 소그룹 강의도 가능하다.(설치예정)

다. 이용자 건의 사항 및 게시판

도서관 측에 요구사항이나 학생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을 땐 건의함 및 게시판을 통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도서관측에서는 열람실 사용에 관하여 학생들이 주의해주기를 바라는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1)열람석의 장기 독점을 삼가하기 바라며, 또한 열람실내의 청결을 유지하여 주기 바란다.

2)특히, 24시간 열람실의 경우 개인 독서설화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용 학생 스스로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

3)열람실내에서는 여러가지 음식물(라면, 음료수, 과자 등)의 취식 행위를 삼가하길 바란다.

4)도서관 건물내에서는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의 부착이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라. 개인연구열람실(Carrel)설치 : 자료열람실안에 8개의 개인방을 마련하였음. 책상, 컴퓨터책상, 책꽂이, 전기스탠드 등이 갖추어졌으며 개인 열쇠를 갖고 다닐 수 있다. 박사과정이상, 강사, 교수 등에게 1주일 단위로 빌려준다. 각종 자료나 참고도서를 갖다 놓고 논문등을 쓰기에 알맞은 공간이다. 앞으로 수요가 늘 경우 이 시스템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마. 본교가족문고 : 자료열람실내에 설치준비중. 경희의 교직원 등 경희인들의 저서를 한데 모아 특별관리한다.

바. 그룹스타디룸 : 자료열람실 복동쪽 코너에 1, 2층 열람실 동, 서에 각1개씩의 소규모 그룹스타디룸 설치 준비중.

사. 24시간 열람실 : 지층 복서쪽코너(학생회관 방면)에 1석 규모의 24시간 열람실운영, 4월3일부터 개방, 냉·난방 공급.

아. 학술잡지실 : 1층에 마련된 학술잡지실에는 9백50여종의 제본된 외국 학술잡지와 7백종(서울의 경우 6백여종)의 정기 간행학술잡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Microfilm Reader도 가능하다.

〈취재부〉

朔風
현대판 '여불위'의 등장(?)

통일 진의 건설 전, 시황제의 실제 아비되는 여불위는 일개 장사치에 불과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들며 재물을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이던 중 금은보화의 거래에서 생기는 한정된 이득보다는 '한번의 투자로 그 짭짤한 재미가 평생을 간다는 사람장사가 최고'란 말을 주워 들곤 단박에 실행해 옮긴다.

그후 그는 통일 진의 승상이라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뱅뱅현' 자리에 올라 평생 호의호식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톡톡한 재미를 보았다.

미래의 재목을 키운다는 말로 들릴 수 있는 사람장사는 일상적으로 고금을 막론하고 횡행하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이라는 말과 그 뜻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 매관매직의 유행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사회의 쇠퇴기 국에 달했을 때 두드러지곤 했었는데, 이는 자리를 둘러 싼 계산이 그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어쨌든 이는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한 뒤 한밑천을 기다리는 일종의 상행위다. 민중의 눈알에서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것이므로…

대학시절 교수의 사회참여가 대중에 회자되던 때, 한 교수님의 말을 빌면 교수가 교수직에 머물러야 하는 주된 이유가 교수는 교수고, 정치는 정치인이고, 행정은 행정가라는 분리적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직을 수행하는 한 지식인에 부여된 사고와 지식의 유형과 범주는 그를 이것에 참 알맞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그로 하여금 타인을 계략과 지모로 속이는 시기와 질투로 둘러싼 세상에는 여간해서 익숙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개개의 직업군이 길러내는 전형과 양상은 참으로 달라서 몇몇의 예를 빼면 그 이동과 안착이 그리 쉽지 않다.

셈과 계산에 능한 경제인의 경우에 익숙해진 전형은 의와 자리에 집착하는 정가와 생리가 맞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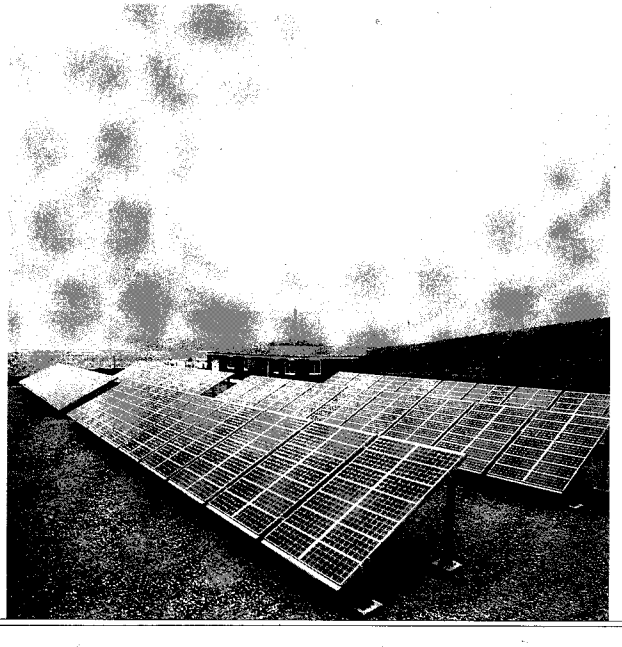
모회장의 정계진출을 보며 느끼는 감상은 그리 달콤한게 못된다.

영입하는 측과 정가로 나서는 측 간에 무언가 고도의 은밀한 계산이 있었으리라는 불순한 추측을 하게 한다. 더욱이 정치권력은 민중의 한표 한표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재물의 축적이 민중의 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일진대 그 합일이 이루어지기가 여간 힘든게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순한 시각을 갖게하는 우리나라의 사정은 지금껏 관에서 "이권"에 정통했기 때문일 것이고 이권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혼란할때 나라를 다스릴에 능한 정객이 정치권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경제가 휘청일 때 수리가 밝고 셈에 능한 경제인을 기다리는 것이다.

〈趙頭〉

21세기 에너지-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마라도 태양광발전 시스템



"우주에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태양은 에너지 비로 그 자체입니다.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방사되는 에너지는 약 3.8×10^{23} kW정도이며 이 가운데
지구상에 도달되는 에너지는 연간 약 1.6×10^{18} kWh 로서 이는 세계 1차 에너지소비량의
약 15,00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없을까?

한국전력은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프로젝트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입니다.
태양광발전이란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반도체인 태양전지를 이용한
무연료·무공해의 직접발전방식으로 한국전력에서는 도서 지역과 산간벽지 주민을 위하여,
이미 1991년 최남단 마라도에 30 kW, 1993년 충남 호도에 100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건설하여 운전 중에 있으며, 주택및 대규모 전력공급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실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전력 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팀은 이 무한대의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품질좋은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 국민문화생활과 국가산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21세기 태양광발전 시스템 (SPS : Solar Power Satellite)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태양광 연구팀
책임연구원 · 임영창
선임연구원 · 황인호
연 구 원 · 안교상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